

# 북스

Books

## 오늘날 유럽은 이슬람 문명이 만들었다

신의 영광로

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 지음

732년 10월, 대규모의 기독교 군대와 무슬림 군대가 프랑스의 중부 평원 투르 푸아티에에서 맞섰다.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바에 의하면 프랑크족의 지도자 카를 마르텔이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기독교를 이슬람으로부터 구했고, 스페인을 점령하고 이어 피레네 산맥을 넘어 계속 전진해오던 '이반적인 무슬림의 기관차'를 멈춰 세웠다.

그러나 미국 뉴욕대학의 역사학과 석좌교수인 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는 이 책 '신의 영광'에서 유럽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발전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예루살렘의 바위 돔 성전. 아브드 알-말리크 이븐 마르완 칼리프가 685년부터 691년까지 건립했으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신전으로 알려졌고,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고 하는 이슬람 성지. <책과함께출판사 제공>

입을 울리지 못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문화 면에서도 차이가 극명해 10세기 말 스페인 남부의 코르도바에는 도서관이 70여 개에 이르고 종이 원고로 된 장서만도 40만 권이 넘었다. 반면 스위스 세인트 갈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소장한 책은 송아지 가죽이나 양피지에 쓰인 600권이 전부였다.

이 같이 앞선 이슬람 문명은 알-안달루스의 기독교인에게 흡수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결국 유럽이 암흑기를 지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었던 지식의 기반을 형성하게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아라비아 반도 변방에서 시작한 이슬람 문명은 옹골거리게 비이슬람교도까지 융합하면서 선진 문화, 나아가 오늘날의 유럽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책은 두 번이나 플라체상을 받은 비교역사학자의 알찬 연구 성과물이다. 기독교의 관점에 치우쳐 있던 유럽 중세사를 당시 유럽에서 공존했던 이슬람 문명과 비교하며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아브드 알-라흐만 1세가 코르도바에 건설한 대모스크(라 메스카타)의 벽에 새겨진 아랍어 문장 "이것은 이미 앞에서 벌어진 일을 구현하고 뒤에 오는 것을 밝혀주었다"를 언급하며 알-안달루스로 대변되는 이슬람 문명이 현재의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에 대해 다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300년 전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문화적 역할과 정치적 패권이 역전되어 있던 시대의 장구한 역사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21세기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책과함께 > 3만30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300년 전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문화적 역할과 정치적 패권이 역전되어 있던 시대의 장구한 역사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21세기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책과함께 > 3만30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법정스님의 생애 소설로 복원하다



불교와 역사 분야 소설을 주로 써온 백급남씨가 법정 스님의 출생에서 출가, 수행, 입적에 이르는 생애를 복원한 장편소설 '참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을 펴냈다.

무소유의 길을 걷게 된 과정, 현실참여와 수도자의 삶 사이에서의 갈등, 길잡이 창간 뒷이야기, 재판법인 참고 향기롭게 창립과정도 입체적으로 그렸다.

스님이 1960년대에 쓴 시(詩) 네 편을 발굴, 공개하는 등 '글쟁이 법정'의 면모 역시 유감 없이 확인시켜 준다.

<은행나무 > 1만15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술과 장미의 나날 이중화 지음

재즈 칼럼니스트, 오디오 평론가, 추리소설 작가,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활동중인 전방 위 예술가 이중화씨는 술 안에 역사, 문화, 교양, 지식, 예술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손을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술'을 통해 추억과 감성과 교양을 끌어내고 싶었던 그가 '술과 장미의 나날'이라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이 책은 '술'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문화와 영화, 여행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물론 술이다. 해밍웨이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손내팔 이름으로 선사했던 와인 샤토 마고, 고흐·레노 등 세기의 예술가들에게



### 술 속에 역사·문화·교양·지식·예술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압생트, 코비 맥카시의 책 '로드'에 등장하는 위스키 등을 통해 저자는 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고 그 술들은 독자들을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 버번 위스키를 이야기 할 때는 레이먼드 캔들라의 추리소설 '기나긴 이별'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맥주 애호가자 달리기 마니아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맥주를 소개하는 또 다른 재료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 로알드 달의 '맛이 들려주는 건 와인에 대한 이야기'.

영화와 여행 또한 술과 땀 수 없다. 비행기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영화 '패시저 57'이나 '플라이트 플랜'을 통해서만 가내에서 마시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재즈 음악의 천국인 일본 작은 클럽에

서 마시는 기린 맥주는 음악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는 매개체다.

책은 CD가 대세인 시대에 '아날로그'의 힘이 작동하는 LP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흔들듯 '순수한 소주'를 그리워 하거나, 술자리에서 마주친 장쭈이와의 추억,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이방인들과의 추억 등 소소한 이야기로 담겨 있다.

가볍게 써 내려간 글들은 술을 익히고, 그가 각 술 이야기와 함께 깨놓은 영화와 문학 이야기는 각 술에 어울리는 깔끔한 안주처럼 잘 어울린다.

저자의 바람처럼 '맥주전 와인이건 술 한잔 들'이 책을 읽고, 또 그 책이 안내하는 영화로, 책으로, 음악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광활한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

<시공사 > 1만3000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무정부주의자들의 그림책= '백수생활백서'로 2006년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박주영(39)씨의 세번째 장편소설. 커피와 담배, 카페인과 니코틴, 스피드와 알코올, 연애와 우정 등 중독과도 같은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 서른 언저리 주인공들의 일상을 담았다. 재벌 2세, 유명 화가의 딸인 그의 연인, 쇼공에 중독된 유부녀와 그녀의 옛 애인 등이 제각각 상처를 입고 구원을 모색한다. <문학동네 > 1만원

▲롤리코스터=박종관·송인·박병호씨 등 작가이자 현직 교사들이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교육현실을 소설로 곱씹어 보았다. 집단괴롭힘의 고통과 상처를 다룬 배명희씨의 '롤리코스터' 등 일곱 편의 중·단편을 묶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우리 교육현실의 속살과 아픈 상처를 볼 수 있다. <나무와숲 > 1만1000원

▲오늘 읽은 책이 바로 내 미래=독서와 진로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독서 가이드 북이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알 수 있는 책들을 엄선하여, 그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감정을 알게 되고 진로를 찾게 한다. 진로와 꿈에 대한 배경지식을 높이는 책들도 함께 소개해, 진로와 성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하우스 > 1만5000원

▲1인용 식탁=소설가 윤고은씨의 첫 소설집. 혼자 식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꿈을 대신 꾸주는 철학관, 폭설로 고립된 사람이 야생동물이 되는 무인 모텔 등을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단편 9편을 수록했다. 표제작 '1인용 식탁' 등 무거운 현실에 푹 빠진 상상력을 엮어 그려낸 문체로 풀어냈다. <랜덤하우스 > 1만3500원

▲사과가 가르쳐준 것=세계 최초로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만든 농부 가부라 아키노리가 40년간 지켜온 원칙과 소신을 털어놓는다. 아키노리씨는 농약을 쓰지 않고도 생산성도, 맛도 좋고 오랫동안 상하지도 않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10년간 과수원에 매달렸다. 그는 그런 사과를 얻어내는 비결을 땅과 자연에서 찾아냈다. <김영사 > 1만원

▲죽음 그리고 성장=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죽음의 5단계'를 최초로 소개한 책 '죽음과 죽어감'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저자는 "죽음은 재앙도 파괴도 아니며 가장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문화와 삶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레 > 1만3000원

▲초콜릿으로 시작한 영어=SBS '순간포착'에 상에 이란일이, KBS2 '30분 다큐'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김중현 할아버지가 전하는 영어 회화 메소드이다. 그는 영어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와 노력, 그리고 자신감이란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영어 때문에 기죽는, 혹은 영어 때문에 지친 이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글단자 > 1만10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223-1772, 223-1772, 223-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인동 34번지 1-1번지)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영수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은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1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지영 1층)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임무	800원
동산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주산동	4,469㎡ (1,352)	조경	35만원
동림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현동지구	37억원	3,300원	65억원
동림지구	7억원	1,700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	6,500원	100억원
현동지구	4억	1700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편리하신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8.co.kr

**토지매매**

- ▶광산구 우산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일동 준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산구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개발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조합
- ▶마북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시청실 뒤면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삼평 토지매매**

- 종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질, 잡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건물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상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662㎡(200평)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 대출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평창고건물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비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도가 7억 8천만원

**부동산 경제 권면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권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평당	최저가	비고
근면지역/월별	오곡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대동동	대지271, 건물72	347㎡	19억8천	5700원/㎡	11억5천
	자산동	대지492, 건물300	2094㎡	7억9천	3800원/㎡	7억5천
	지산동	대지2671, 건물2827	1297㎡	49억8천	3800원/㎡	19억5천
	산수동	대지21, 건물738	594㎡	39억8천	6600원/㎡	18억5천
	유동	대지214, 건물496	594㎡	39억8천	6600원/㎡	18억5천
	산수동	대지214, 건물738	594㎡	39억8천	6600원/㎡	18억5천
	산수동	대지553, 건물2865	1998㎡	59억7천	29800원/㎡	18억5천
	광림동	대지224, 건물484	394㎡	29억7천	7500원/㎡	18억5천
	광림동	대지816, 건물3965	1849㎡	60억9천	33000원/㎡	18억5천
매곡동	대지82, 건물2884	1294㎡	89억7천	69000원/㎡	18억5천	
광림동	대지223, 건물564	594㎡	39억7천	4800원/㎡	18억5천	
광림동	대지198, 건물357	294㎡	29억8천	29000원/㎡	18억5천	
아파트/빌라	소계지	대지/건물	평	총/승/승	건평가	최저가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주거/재개발	소계지	대지/건물	면적 <td>평당<td>최저가<td>비고</td></td></td>	평당 <td>최저가<td>비고</td></td>	최저가 <td>비고</td>	비고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근면지역	소계지	대지/건물	면적 <td>평당<td>최저가<td>비고</td></td></td>	평당 <td>최저가<td>비고</td></td>	최저가 <td>비고</td>	비고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신안동	대지1537, 건물2400	4095㎡	22억7천	6800원/㎡	19억5천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 전문가과정' 수강생모집  
정원 50명(15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

모집대상  
· 부동산경제를 통한 제테크에 관심있는 주부 직장인  
· 실전경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및 경제전문가  
· 금융기관 대출, 채권 담당자 및 전업경제부자